



순창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기관 직원에 감사장

순창경찰서 이정호 서장은 최근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민간인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4월 2일 경찰청 직원으로 사장한 피싱범이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싱범죄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은행예금 전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해 놓으라” 는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에 방문 6,000만원 인출(타은행에서 추가 5천만원 인출 예정) 요구하였으나 A씨가 의심을 갖고 경찰에 신고하여 전화금융사기범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휴대폰에서 악성앱 삭제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케 한 공로다

이정호 서장은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고객을 인출하는 피해자를 금융기관에서 꼼꼼하고 침착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 예방을 하였다”며 감사의 표시를 하였고, 앞으로도 순창경찰과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제 부랑면, 찾아가는 김제문화 강연 본격 시동

김제시 부랑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열린 이장회의에서 ‘찾아가는 김제문화 강연’의 첫 시연을 진행하며, 마을 밀착형 문화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강연은 문화시설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문화관광 해설사가 마을을 직접 찾아가 김제시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날 강연은 부랑면에 거주하는 김용귀 문화해설사가 자발적인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김용귀 해설사는 김제의 대표 유산인 금산사에 대해 영상과 함께 해설을 진행하며, 문화재에 얽힌 역사와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연 이후 강연을 들은 이장들 중 일부는 강연의 취지와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문화 프로그램이 마을로 직접 찾아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연을 들은 이장들 중 관심 있는 마을은 자율적으로 신청해, 경로당 등 마을별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강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내장상동 주민들, 천변 환경정화 팔 걷어

정읍시 내장상동 주민들이 봄철 자전거도로를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위해 천변 일대 환경정화 활동에 나서며 100kg에 달하는 쓰레기를 수거했다.

내장상동 주민자치회(회장 김영수)는 지난 7일, 벚꽃구경과 야외활동으로 이용객이 증가한 천변 자전거도로 구간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자전거도로를 쾌적하게 가꾸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자발적인 봉사로 마련됐다.

이날 환경정화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30여 명이 참여해 천변누리공원에서 송령교까지 약 500m 구간을 중심으로 방치된 생활쓰레기 약 100kg을 수거했다. 자전거도로 터널 내에서는 사이를 가리던 나무 가지 전지작업도 함께 이뤄져,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탰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벚꽃축제장서 유기견 18마리 새 가족 만나

시민·관광객 대상, 동물보호소 홍보·입양 문화 확산 캠페인 진행

정읍시가 벚꽃축제장에서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을 펼쳐 현장에 동행한 유기견 20마리 중 18마리가 새 가족을 만나는 따뜻한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4일 정읍천변 어린이축구장 일원에서 열린 벚꽃축제장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소 홍보와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급증하는 유실·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입양을 통한 동물보호 인식 개선과 유기동물의 새로운 삶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부스에는 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 20마리가 직접 동행했고, 현장을 찾은 반려인과 예비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18마리가 입양되는 높은 성과를 거뒀다. 동물보호소는 이들과 함께 보호소 홍보물품도 배포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제이에스동물병원 장병귀 원장의 협조로 반려동물들 동반한 관광객들을 위한 무료 건강상담도 진행됐다. 단순한 입양 홍보를 넘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 동물보호소는 유실·유기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할 경우 캔들, 방석, 간식 등 20만원 상당의 입양물품과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입양 희망 시민은 시청 축산과 동물보호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더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동물들이 사랑받는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입양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주천면, 민간단체와 재난대응 업무협약 맺어

남원시 주천면(면장 노환순)은 최근,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참여단체는 주천면 의용소방대, 주천면 자율방재단, 주천면 자율방범대 등 재난 관련 3개 민간단체가 참여하였다.

협약 내용으로는 각종 재난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비상통신 연락체계 상시 가동 및 양방향 소통을 통한 상황전파 및 재난 상황별 인력, 장비 등 자원동원 체계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환순 주천면장은 “각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생활목공예반, 테이블 세트 기증

직접 제작한 테이블 세트, 마을 경로당 7곳에 기증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센터장 마경옥) 생활목공예반 수강생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제작한 테이블 세트를 경로당에 기증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번 기증은 “배워서 남 주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생활목공예반 수강 과정의 일환으로, 수강생 10명이 목공예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통해 직접 입식 테이블 7세트와 의자 7개를 제작해 휴먼시아, 오산, 유숙, 가림, 고도, 갈마, 마암 마을 경로당에 전달했다.

특히 이번 재능기부는 지난 해 5월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경로당 실내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마경옥 센터장은 “우리가 정성껏 만든 테이블과 의자가 어르신들께 편안한 쉼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수업 내내 가슴이 따뜻하고 행복했다”며 “이번 기증이 단순한 나눔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완강기 사용법 적극 홍보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대피 능력 강화를 위해,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완강기 사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완강기 사용법은 △고리에 완강기 걸고 잠그기 △지대

를 청박으로 밀고 질(줄) 던지기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이기 △벽을 짚으며 하강하는 순이다.

김승현 서장은 “완강기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안전장비”라며 “시민들께서는 평소 완강기의 설치 위치와 사용법을 꼭 익혀, 실제 위급상황에서안전하게 대피하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김제경찰서, 봄철 화물차 사고 예방 활동 실시

김제경찰서(서장 박승준)는 차량 이동량이 많아지는 봄행락철을 앞두고 8일 서갑제IC 앞에서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적재불량 및 과적, 속도제한 장치 무단해제 등 불법개조 행위를 함께 단속하였다.

김제경찰서는 화물차 교통사고가 3-5월에 많이 발생하는데 따라, 화물차 통행이 많은 도로 및 상습 민원발생 장소 등 취약장소를 선정, 화물차의 정비불량 및 적재위반 등 주요 위반행위를 단속 중에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